

유 · 무배우 여자노인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The Effects of Age, Economic State, Physical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Widowed and Married Elderly Women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이 신 숙*

Dept. of Social Welfare, The National Suncheon Univ.

Professor : Lee, Shin-Sook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cohort of elderly women who are older than 60 years of age and reside S city in and Jeonnam.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386.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reliability,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SAS package program.

The major study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is low,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group is higher than for the widowed group.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For the women from the married group, the effect were from economic state, age, and physical satisfaction.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according to economic state×physical satisfaction, age×economic state×physical satisfaction, and age×physical satisfaction. As for women from the widowed group, the effect were from physical satisfaction, economic state, and age.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according to economic state×physical satisfaction, age×physical satisfaction, age×economic state×physical satisfaction, and age×economic state. Fourth, the married group gave significance to life satisfaction, economic state, physical satisfaction, and age. The group of widows gave significance to life satisfaction, physical satisfaction, economic state, and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physical satisfaction of older women and should foster a social atmosphere to establish a positive image of elderly women.

▲주요어(Key Words) : 여자노인(elderly women), 연령(age), 경제상태(economic states), 신체만족도(physical satisfaction),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I.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이미 7.2%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2009)의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에도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3%로 가장 높으며 전국 247개 시·군·구에서는 30개 이상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그 중 충북 괴산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

* 주저자 · 교신저자 : 이신숙 (E-mail : lsi@sunchon.ac.kr)

났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노인인구 변화의 특징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며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거센 돌풍처럼 밀려왔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고령화를 '노인 쓰나미(silver tsunami)' 현상으로 비유되어 거론되기도 하는데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시적 수준에서는 노인 자신과 가족생활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인이 갖는 문제를 3품 내지는 4품로 표현하고 있다. 즉, 빈곤, 질병, 소외(고독), 무역할이 그것인데 노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적어도 한가지 내지는 중복하여 지니면서 과거보다 길어진 노년기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 여유와 건강을 지닌 새로운 노인세대도 등장했는데 그들은 일명 뉴 실버 세대(new silver generation)로서 S세대(silver generation), G세대(gold generation)라고 불리워진다. 이들은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세대이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지니며 계획된 노후설계로 독립을 추구하고 변화에 개방을 표방하기도 한다. 그리고 욕구도 다양해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하면 다양한 취미활동, 교육, 봉사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으로 도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노인들은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욕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과거와는 또 다른 여러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노인문제는 여자노인의 문제라고 할 만큼 노인인구 비율 중 여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이 여자노인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자노인의 평균수명보다 6~10년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79.1세이지만 남자노인은 75.1세, 여자노인은 81.9세이다(통계청, 2008). 이와 같은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와 전통적인 혼례관습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로 인해 75세 이상인 고령노인 중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70% 이상이다.

여자노인들은 남자노인보다 장수하지만 거의 모든 시간을 가정내 역할에 전념하였고 가정 외부의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단기간이며 임금도 남자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2.7배 높고 용돈도 1.8배 많아 남녀 간 경제적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을 살펴보다도 20~30대에서는 혜택받는 비율이 남녀가 비슷한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받는 여자노인의 비율이 남자노인의 비율보다 3배 정도가 많다는 것에서도 여자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2). 또한 여자노인들은 관절염, 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이가

든다는 신체적 신호가 남자보다는 더 귀에 거슬리는 '노화에 대한 이중잣대'로 인해 노년기에 대한 건강한 적응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Sontag, 1972). 그나마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가부장권을 지녔던 배우자와 함께 지위와 권위를 어느 정도 공유하지만 사별 등을 통한 배우자의 상실은 의존적이었던 여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노년학 연구에 있어 노화에 대한 논의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1970년대 초부터 노인들에게 어떠한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노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행복해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즉 '삶의 질', '삶의 만족', '생활만족도', '심리적 복지감' 등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만족스럽게 영위하자는 취지에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강유진, 2003; 권중돈·조주연, 2000; 김미령, 2008; 김태현 등, 1998; 유희정, 2007; 이신숙, 2004).

그 중에서도 생활만족은 자신이 바라는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를 성취하는 기본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한 결과로 배우자의 유·무, 연령, 경제상태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기대수준의 충족 정도인 신체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류은정·김영희, 2008; 이상희 등, 1997; 임경복, 2009)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체이미지는 자아개념 형성과 표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외모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아개념의 일부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감정적 차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더욱 어렵게 보내고 있는 여자노인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그들의 연령, 경제상태, 그리고 그 동안 간과되었던 여성들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인 신체만족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함으로써 여자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관련변수의 주효과와 더불어 관련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노인의 신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령, 경제상태,
 신체 만족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관련연구 고찰

1. 여자노인의 특성과 생활실태

노인의 평균수명의 차이로 여자노인의 노년기가 남자노인의 노년기보다 거의 6-10년이 더 길어(통계청, 2007) 전체 노인인구 중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우리나라 남녀 간 평균 수명의 차가 미국(3.5세)이나 일본(5.7세)보다 상회하는 것은 우리나라 40대 이후 남성의 사망률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고령화와 더불어 여자노인의 증가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7).

또한 초혼연령의 차이로 남자노인의 유배우율은 88% 정도 인 반면 여자노인은 34% 정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아갈수록 심화되는데 연령별 노인인구의 성비는 65~69세는 74.2명, 70-74세는 63.4명, 75~79세는 50.5명 그리고 80세 이상은 33.3명으로 고령화일수록 홀로 지내는 여자노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편 실제 나타나는 노화와는 별개로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노성자각 연령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빠르다고 연구들(전재일, 1978; Peters, 1971)은 지적한다. 이는 여성의 지위나 자아개념이 상당부분 신체적인 외모에 비중을 두고 있고 폐경이나 손자녀의 출산이 노인기로의 분기점이 된다고 본다면 남성은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적 성취에 보다 의미를 두고 직업적 은퇴시점이 분기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에 따른 노성자각 연령은 최근 조기은퇴나 자녀들의 만혼으로 인하여 점차 그 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자노인들은 경로법이나 노인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인 65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신을 노인이 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남자보다 긴 노년기를 보내는 여자노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자녀와의 관계문제, 생활보장문제, 건강문제, 재혼문제, 고독 등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자노인들은 생활배경이 주로 가정 내에 국한되었고 직업을 가졌다하더라도 단기화,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소득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로 인해 노령기에 받게 되는 연금수혜 혜택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2000)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곤한 노령인구 중 4/5가 여성이며 여자노인 10명 중 1명은 절대 빈곤상태에 있고 시설보호대상자의 73.9%가 여자노인이라고 하였다.

둘째, 건강의 측면에서는 잦은 출산과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유병률이 높다. 여자노인에게 가장 많은 질환은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며 최근에는 노인성 우울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성질환의 특징은 회복율이 낮으며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성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노화에 대한 이중 기준의 적용으로 남성에게 있어서는 경험과 노련미의 증거로 매력으로 비춰지는 은발과 거친 피부, 주름 등이 여성에게는 젊음의 상실로 여겨져 매력적이지 못하고 낭만적인 상대로서 가치를 사라지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가져오는 평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며 결국 비판과 우울의 바탕이 되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셋째,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한 우울감을 갖는다. 여성들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살아오면서 의무만 강요된 채 현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더구나 남아선호사상으로 자녀 중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들의 결혼으로 인한 상실과 허전함을 갖게 되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고부갈등이라는 상처를 안게 된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교육기회의 증가 및 취업 등으로 인하여 고부갈등의 내용과 국면도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시어머니가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이신숙, 2004). 또한 배우자의 상실로 경제적으로 불충분하고 건강이 열악해 지면서 심리적인 위축감을 가져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이와같은 일반적인 어려움에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배우자의 상실은 더 심한 고통의 질곡에 처하게 된다. Holmes와 Rahe(1967)는 연구를 통해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에게 가장 높은 수치의 스트레스 정도를 가져오는 생활사건으로 거론하였는데 여자노인들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삶의 질을 다룬 국내의 연구들(김미혜 등, 2005; 윤현숙·유희정, 2006; 이신숙, 2004; 조옥희, 1991)은 배우자의 상실은 건강의 악화와 우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소외감 등을 가져와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Tompson 등(1984)과 Stroebe 등(1993)의 연구에서도 사별을 하게 되면 남녀 모두 배우자의 사별 전보다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에 쉽게 걸리며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며 심하면 죽음까지도 초래한다고 하였다.

반면 최근 연구(박기남, 2004; 유희정, 2007; Chambers, 2000)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홀로 된 여자노인들에 있어서 사별은 오히려 여성의 유능함과 생존 능력을 강화시켜 삶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하며 능동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살기를 꺼려하며 노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와의 사별은 인생 동반자의 상실을 의미한다. 즉 배우자끼리 서로 보살피며 정서적 지원을 해 주며 일상생활을 쉽게 해 주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심리적인

외로움이 정신적·신체적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2.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

1) 생활만족도의 개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화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응기제를 찾고 충실하게 노년기를 보냄으로써 만족스런 lifestyle를 구축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를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어느 다른 시기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한 위기감을 갖는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시나 지표, 노인 자신의 동기나 활력이 부재하고 인생의 마무리에 도달한 개인들 간의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노년기 특유의 문제를 갖고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활동이론과 이탈이론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연구 초기의 생활만족도 개념은 자기, 행복감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또는 심리적 안녕감 등 좀 더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생활만족도는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위 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고 이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김연, 2001).

한편 생활만족도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거론되는데 성공적 노화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볼 때 생활만족도는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들(권중돈·조주연, 2000; 김연, 2001; 김태현, 2000; Chappell & Badger, 1989; Mannell & Dupuis, 1996)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경제상태, 교육수준, 성별, 자녀와의 유대관계, 결혼상태, 자녀유무, 사회참여, 종교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거론된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를 주요변인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배우자의 유·무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노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우리기(empty nest)가 길어지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부부관계의 중요성 인식 등으로 인하여 노부부관계는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사별은 인생 동반자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홀로 남은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우울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에게 있어 배우자의 상실은 심각한 절망과 고독을 수반하며 가족이 없는 남자의 경우 자살, 알코올 중독 및 사고사의 비율이 높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낮다(김지연, 2002)고 밝히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여러 연구들(조옥희, 1991; 이신숙, 2004)은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보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며 노후생활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이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최근의 연구들(윤현숙·유희정, 2006; 김미혜 등, 2005) 역시 배우자의 유·무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배우자의 상실은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연령

노년인구의 성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자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로 고령인 여자노인인 경우 무배우자일 확률이 높아진다.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며 생활만족도에서도 낮다. 이와 같이 여자노인의 연령증가는 배우자의 부재를 예고하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쇠퇴를 가져와 만성적인 질환과 장애를 갖기 쉬워진다. 그리고 기력이 쇠진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어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 김태현(2000)은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양을 필요로 하고 배우자의 상실이나 심신의 약화로 인한 고독, 소외의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다고 하였다. Cumming과 Henry(1961)도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의 어려움, 유능함의 감소, 능력의 감소를 가져와 실망과 통제의 결여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한편 Tibbitts(1960)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화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상실에 의하여 감소하며 사회적 활동과 상호 대인관계에 관한 심리적 욕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하였다(김연, 2001 재인용). 즉, 여성노인의 연령 증가는 타인에게에 의존성을 증가시키며 자존성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아평가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경란, 1988).

③ 경제상태

노인의 경제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성적 혹은 고질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의존감 때문에 노인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남기민, 2005). 또한 그동안 자신이 부양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부양받는 위치로의 전환이 사기를 위축시키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Chatfield(1977)는 은퇴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역할상실에 기인하기 보다는 은퇴에 따른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고 밝혀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성재와 장인협(2004)도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 아니라 노인의 자아와 지위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며 경제적 안정과 보장이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만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인의 경제상태는 노인의 용돈 사용량과 용돈 수준에 의해서 측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용돈의 정도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대부분이 여성노인이라는 점을 볼 때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남자노인보다 낮고 거기다가 배우자의 부재는 자녀의 지원도 동반하여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④ 신체 만족도

인간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다. 특히 사회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를 요구하곤 한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외모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주덕(2007)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상당수인 88.5%가 피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 중 화장을 하는 경우도 48.3%나 된다고 하였다. 특히 '외출할 때 항상 한다'는 노인과 '항상 하고 있다'는 노인들도 있어 평소에도 늘 꾸미는 노인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노인 숫자도 응답노인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고 응답자의 71.7%가 노인세대의 화장품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여자노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만족 여부는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어 만족할 때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된다(김미숙·김경희, 2000). 즉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Alfonso et al., 1996).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와 가까울수록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이상적인 외모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신체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상실감을 갖게 된다(이현옥·구양숙, 2009). 그런데 보통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자신의 신체를 비하하는 경향이 높으며(Kogan과 Shelton, 1962; 홍숙자, 2004에서 재인용) 아름다움의 이상은 젊음으로 표현하고 있다(Clarke, 2002). Bordo(1999) 역시 나이는 여성들은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평가절하되며 여성적인 미도 상실한다고 하였다.

젊음에 대한 찬미와 노년기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평가절하 및 부정적 태도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여기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노인들의 자기 이미지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여성에 대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점점 젊어지고 탄력적이며 날씬함과 분위기를 지닌 여성들에 집중되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미적 상실감을 얻게 되고 결국 사회적 유능함과 자존감, 정체성에 위협이 되곤 한다. 더구나 나이가 든다는 신체적 신호가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더 귀에 거슬리는 '노화에 대한 이중잣대'가 적용(Sontag, 1972)되고 외모에서 영원히 젊고 아름다워야 하는 생각을 하며 생물학적, 건강의 변화가 그 이미지를 변화시킬 때 노화에 대한 건강한 적응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존중감의 상실, 우울증, 부끄러운 자의식을 갖게 되어(김동기·김은미 역, 2006)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상실을 수용하고 만족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와 성공적인 노화의 열쇠가 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전남 S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7년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에게 노인복지학을 수강받는 학생들에 의해 개별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모두 410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자료로서 불충분한 33부를 제외한 총 38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여자노인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하여 조사되

었다. 질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 여자노인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배우자의 유·무, 연령, 경제상태를 알아보았다. 먼저 연령은 개방형 질문으로 본인의 나이를 기입하도록 한 후 연구자에 의해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경제상태는 여자노인 자신들이 지각하는 경제상태로 그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여유있다, 매우 여유있다라는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부족하다, 보통이다, 여유있다라는 3범주로 재분류하였다.

2) 신체 만족도

여자노인들의 신체 만족도는 본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척도에 의해 조사되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여성의 신체 부위 중 노년기 여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얼굴, 체중, 몸매에 대해 알아보았고 건강의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을 추가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를 구성한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공관련 교수 3인에 의한 안면타당도를 통해 그리고 노년기 여성 5인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신체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6$ 이었다.

3) 생활만족도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는 Medley(1976)의 척도를 번역하여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김종숙(1987)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모두 2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생활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9$ 로 매우 높았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2> 여자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초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3> 여자노인의 신체 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4> 여자노인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 만족도,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및 변량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5>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다음 <표 1>에 제시되었다. 표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은 207명(53.6%) 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은 179명(46.4%) 이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60대와 70대가 각각 148명(38.3%), 142명(36.8%)으로 조사되었고 80대 이상은 96명(24.6%)으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 60대가 60.4%, 80대 이상 여자노인은 8.2%가 조사된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60대가 12.8%, 80대 이상이 44.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표집 결과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여자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김미령(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자노인들의 경제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45.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부족하다'는 여자노인도 38.1%나 되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46.9%나 되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30.4%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여자노인들의 신체만족도는 중간정도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2. 여자노인의 신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여자노인들의 신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에서와 같이 여자노인들의 신체만족도는 평균 11.6점으로 중앙치인 12점(최대:20점, 최소: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신체 만족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이 부족하여 생기는 주름, 흰머리, 뚱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약한 몸매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노이가 들어간다는 신체적인 변화를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결합시켜 자동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유배우 여자노인	무배우 여자노인	전 체
연 령	60대	125(60.4)	23(12.8)	148(38.3)
	70대	65(31.4)	77(43.0)	142(36.8)
	80대 이상	17(8.2)	79(44.1)	96(24.6)
경제 상태	부족함	63(30.4)	84(46.9)	147(38.1)
	보 통	104(50.2)	72(40.2)	176(45.6)
	여유있음	40(19.3)	23(12.8)	63(16.3)
신체 만족도	상	59(28.5)	45(25.1)	104(26.9)
	중	88(42.5)	76(42.5)	164(42.5)
	하	60(29.0)	58(32.4)	118(30.6)
생활 만족도	상	55(29.5)	63(35.2)	126(32.6)
	중	91(44.0)	54(30.2)	137(35.5)
	하	61(29.5)	62(34.6)	123(31.9)
합 계		207(53.6)	179(46.4)	386(100)

<표 2>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신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유배우 여자노인(N=207)	무배우 여자노인(N=179)	t 값	전 체(N=386)
	M (SD)	M (SD)		M (SD)
신체만족도	11.7(2.56)	11.5(2.80)	0.53	11.6(2.68)
생활만족도	83.5(9.94)	77.7(11.90)	5.16***	80.8(11.3)

***p<.001

으로 자신을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긴다는 태도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들은 남성보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이 많아 '나는 늙어보이는 것이 두렵다'라는 문항에 높은 점수를 보인 최순옥 외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자노인의 신체만족도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80.8점으로 중앙치인 72점(최대:120, 최소:24) 보다 높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83.5점으로 매우 높아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인 77.7점과 차이가 많았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생존한 노인에 비해 정신적 질환이나 자살률, 사망률이 높으며 사회적응도도 낮아 생활만족도가 낮았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종숙, 1987; 이신숙, 1995, 2004; Davis et al., 1992)와 일치한다.

3. 여자노인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표 3>과 같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F=6.90, p<.001), 연령(F=5.12, p<.01), 신체만족도(F=3.12, p<.05)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F=5.79, p<.001), 연령 *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F=2.89, p<.01), 연령 * 신체만족도(F=2.04, p<.05)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경제상태가 보통이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가 부족한 경우보다, 연령이 60-70대인 경우가 80대 이상인 경우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70대이면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힌 여러 연구(강유진, 2003; 김종숙, 1987; Chatfield, 1977)의 결과와 일치한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경제상태는 객관적인 경제상태와는 관계없이 노인 개인이 인지하는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더욱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은 신체적 건강 및 사회활동의 참여여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여자노인이 생활만족도도 낮다는 본 연구 결과는 신체만족도 척도 내에 건강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의 첫걸음이 건강이라는 연구결과(김미령, 2008; 홍현방, 2005)와 일치한다. 그리고 여성은 젊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노화에 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노화에 대한 건강한 적응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존감의 상실, 우울증, 부끄러운 자의식을 갖게 되며 따라서 삶의 질은

<표 3> 유배우 여자노인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인 집단	유배우 여자노인(N=207)						
	변량원	M (SD)	Dun.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연령 (A)	60대	83.8(8.4)	a				
	70대	84.6(12.0)	a	742.4	2	371.2	5.12**
	80대 이상	77.3(10.5)	b				
경제상태 (B)	부족함	80.3(8.4)	a				
	보통	84.6(11.7)	b	1001.4	2	500.7	6.90***
	여유있음	85.9(10.1)	b				
신체만족도 (C)	상	85.0(7.2)	a				
	중	84.0(11.2)	ab	452.6	2	226.3	3.12*
	하	81.3(10.1)	b				
A x B				667.0	5	133.4	1.84
A x C				739.7	5	147.9	2.04*
B x C				2099.2	5	419.8	5.79***
A x B x C				884.6	9	209.4	2.89**

*p<.05, **p<.01, ***p<.001

<표 4> 무배우 여자노인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인 집단	무배우 여자노인(N=179)						
	변량원	M (SD)	Dun.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연령 (A)	60대	78.9(13.9)	a				
	70대	80.0(11.4)	a	976.5	2	488.2	23.79***
	80대 이상	75.1(11.6)	b				
경제상태 (B)	부족함	74.6(12.5)	a				
	보통	79.2(11.3)	b	1898.8	2	949.4	46.26***
	여유있음	84.0(8.7)	c				
신체만족도 (C)	상	85.8(10.5)	a				
	중	77.3(9.9)	b	4903.9	2	2451.9	119.48***
	하	71.9(12.2)	c				
A x B				1781.5	5	356.3	17.36***
A x C				2484.3	5	496.8	24.21***
B x C				6432.1	5	1286.4	62.68***
A x B x C				4059.2	9	451.0	21.98***

*p<.05, **p<.01, ***p<.001

떨어지게 다고 해석된다(김동기·김은미 역, 2006).

<표 4>와 같이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신체만족도(F=119.48, p<.001), 경제상태(F=46.26, p<.001), 연령(F=23.79, p<.001)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F=62.68, p<.001), 연령 * 신체만족도(F=24.21, p<.001), 연령 *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F=21.98, p<.001), 연령 * 경제상태(F=17.36, p<.001)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경제상태에 있어 여유가 있는 경우가 부족한 경우보다, 연령이 60-70대인 경우가 80대 이상인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좋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70대면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70대이면서 경제상태가 좋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70대이면서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가 부재한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고령, 건강의 악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의 축적은 생활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5.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독립변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0.0685~-0.1294)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나 상호작용하는 변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5이상으로

<표 5> 유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							
(2)	-0.1294*	.						
(3)	-0.0151	0.2094***	.					
(4)	0.6814***	0.5808***	0.1526*	.				
(5)	0.7268***	0.0583	0.6210***	0.6425***	.			
(6)	-0.0722	0.7630***	0.7528***	0.4710***	0.4284***	.		
(7)	0.5129***	0.5386***	0.5915***	0.8467***	0.8304***	0.7482***	.	
(8)	-0.1073	0.2089***	0.1423*	0.0853	0.0403	0.1897**	0.1270*	.

*p<.05, **p<.01, ***p<.001

(1) 연령 (2) 경제상태 (3) 신체만족도 (4) 연령 x 경제상태 (5) 연령 x 신체만족도 (6) 경제상태 x 신체만족도

(7) 연령 x 경제상태 x 신체만족도 (8) 생활만족도

<표 6>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							
(2)	-0.1162	.						
(3)	-0.0685	0.2943***	.					
(4)	0.4826***	0.7806***	0.2217**	.				
(5)	0.5303***	0.1681**	0.7187***	0.4708***	.			
(6)	-0.0899	0.8044***	0.7222***	0.6447***	0.5568***	.		
(7)	0.2874***	0.7091***	0.6518***	0.8202***	0.8987***	0.8492	.	
(8)	-0.1594*	0.2725***	0.4292***	0.1023	0.2629***	0.3893	0.2848***	.

*p<.05, **p<.01, ***p<.001

(1) 연령 (2) 경제상태 (3) 신체만족도 (4) 연령 x 경제상태 (5) 연령 x 신체만족도 (6) 경제상태 x 신체만족도

(7) 연령 x 경제상태 x 신체만족도 (8) 생활만족도

<표 7> 유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변인 집단	유배우 여자노인 (N=207)		
	B (SE)	β	Partial R (step)
연령	-1.2782 (8.41)	-0.0829*	0.01(3)
경제상태	2.5114 (7.70)	0.1764***	0.05(1)
신체만족도	1.3621 (6.83)	0.1042**	0.02(2)
회귀상수	77.94		
R	0.08		
F	4.37**		

*p<.05, **p<.01, ***p<.001

매우 높아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상호작용 변인은 제거하기로 하였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여자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 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가 다음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7>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β=.1764, p<.001), 신체만족도(β=.1042, p<.01), 연령(β=.0829,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모두 8%이었다. 즉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신숙(2005), 홍순혜(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들 역시 노인의 좋은

건강과 여유로운 생활은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건강을 비롯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를 더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외의 선행연구(김미령, 2008; 홍현방, 2005; Keith, 1986)들도 건강과 생활만족간의 깊은 관련도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삶의 모습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한 강유진(2003)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객관적인 질환의 유·무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건강하고 아직은 젊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건강함을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감이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힌다고 하였다.

<표 8>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변인 집단	무배우 여자노인 (N=179)		
	B (SE)	β	Partial R (step)
연령	-2.0342 (1.16)	-0.1169*	0.02(3)
경제상태	2.6578 (1.19)	0.1543**	0.02(2)
신체만족도	6.0713 (1.09)	0.3835***	0.18(1)
회귀상수	66.26		
R	0.22		
F	17.11 ***		

*p<.05, **p<.01, ***p<.001

<표 8>은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은 신체만족도($\beta=0.3835, p<.001$)이고 그 다음이 경제상태($\beta=0.1543, p<.01$), 연령($\beta=-0.1169, p<.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모두 22%이었다, 그 중 신체만족도는 18%의 설명력을 나타내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자노인의 경우 고령일수록 배우자가 부재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에 따른 건강 염려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상실감이 커지면서 이러한 자신의 신체 전반에 걸친 만족정도가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연령이 많은 노인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때 고령일수록 배우자의 부재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유진(2003), 김미령(2008), 이신숙(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여자노인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그들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지 조사함으로써 여자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여자노인의 신체만족도 변인을 선정함으로써 노년기 여성들의 건강 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관심과 같은 다양한 욕구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노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자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결국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자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노인들의 신체만족도는 중앙치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 신체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중앙치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 연령, 신체만족도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 연령 *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 연령 * 신체만족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경제상태가 보통이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가 부족한 경우보다, 연령이 60-70대인 경우가 80대 이상인 경우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70대이면서 경제상태가 좋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70대이면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신체만족도, 경제상태, 연령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 연령 * 신체만족도, 연령 * 경제상태 * 신체만족도, 연령 * 경제상태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경제상태가 여유가 있는 경우가 부족한 경우보다, 연령이 60-70대인 경우가 80대 이상인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좋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70대면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대이면서 경제상태가 좋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 연령이 60대이면서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가장 관계가 높은 변인은 경제상태, 경제상태*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 연령*경제상태*신체만족도이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신체만족도, 경제상태*신체만족도, 연령*경제상태*신체만족도, 경제상태, 연령*경제상태, 연령이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밀접하였다.

넷째,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 신체만족도, 연령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모두 8%이었다. 즉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신체만족도, 경제상태, 연령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2%이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여성들의 생활무대가 가정 내에 한정되어 왔으므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생활이 허전하고 동시에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사별은 노년기 남녀가 갖는 불가피한 생활사건이기 때문에 노후적응의 일환으로 배우자 상실을 극복할 수 방법을 사전교육을 통해 인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복방안으로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거나 취미생활, 종교활동 등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 본다든지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과 능력 등의 내적자원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상승되고 오히려 독립심과 유능감을 갖게 되어 개인적인 내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성공적 노화란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사고력으로 적극적인 대인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노인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봉사, 여가, 취미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낮은 생활만족도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우울, 분노, 긴장, 슬픔 등의 감정을 누구에게나 털어 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상담소를 개설한다든지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전화상담과 순회 방문상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들의 경제상태는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도 경제상태는 생활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자노인들을 위한 생활비 보조, 세금우대나 노인할인혜택, 가족수당과 연금의 지급 등 국가적인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요즘은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과거 노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노년기라는 긴 여가를 활기차게 보내면서 소득도 가져올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요즘 각 지역마다 노인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열고는 있지만 실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일들이 가시적인 결치레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어 일자리 마련을 위해 행사장을 찾는 노인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지역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런 봉사를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봉사에 따른 약간의 수당, 자원봉사 저축제도, 세금감면, 건강진단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여자노인들의 신체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소홀히 여겼던 여자노인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노화는 여성들이 신체, 마음, 건강 변화가 함께 유지되어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가령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러움으로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며 기능적인 안정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자노인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이다. 여자노인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를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여성 고유의 역할로 인한 아름다운 변화라는 인식으로 수용하고 신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 아름다움에 비중을 둘 때 노년기 여성의 자부심은 높아지며 생활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TV, 영화, 광고매체, 연극,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여성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매체에서 보여주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탈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자노인에게 있는 TV는 세상을 보는 창이며 친구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매체가 노년기를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황금기로 비춰주는 것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라는 변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비교적 큰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8%로 낮았다는 점을 볼 때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변인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변인 선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 외에도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선정의 간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자노인을 배우자의 유·무로 분류하여 조사하다 보니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높다는 사실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배우자유·무와 연령이 중복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이 S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2003). 한국 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31-146.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동기·김은미 역(2006). **노인심리와 사회**. 창지사.
-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미숙·김경희(2000). 여고생의 Bodice 체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1004-1014.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김연(2001). 노인대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 학위 논문.
- 김주덕(2007). 실버세대의 화장품 사용 동향. **대한화장품학회 추계 심포지움**.
- 김지연(2002). 자녀와의 관계와 성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2000). **노년학**. 서울:교문사.
- 김태현 외 4인(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61-81.
- 남기민(2005). **현대사회복지학**. 양서원.
- 류은정·김영희(2008). 남자대학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과 동기. **대한가정학회지**, 46(1), 63-72.
-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장남부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기남(2004). 생애구슬을 통해 본 독거여성노인의 삶. **페미니즘 연구**, 149-194.
- 보건복지부(2000). 2000년 통계연보.
- _____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노인실태조사.
- 유희정(2007).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 27(3), 617-634.
- 윤현숙·유희정(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상희·김현식·손원교(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83-395.
- 이신숙(1995).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의 지원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3집, 목포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 _____ (2004). 자기진술에 의한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한국가정과학회**, 7(2), 59-79.
- 이현옥·구양숙(2009). 외모만족이 기능성화장품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4), 73-81.
- 임경복(2009).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6), 67-77.
- 전재일(1978). 노인으로서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한국사회사업대학 노인복지연구소.
- 조옥희(1991).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장인협(2004).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순옥·김숙남·신경일·이정희(2008). 일부 지역 성인의 노후 불안. **한국노년학**, 28(1), 19-32.
- 통계청(2005). 2005 고령자 통계.
- _____ (2006). 장래인구신추계.
- _____ (2007). 인구·가구/생명표.
- _____ (2008). 2007 고령자 통계.
- _____ (2009).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007). **노인복지론**. 양서원.
- 홍숙자(2004). **노년학개론**. 하우.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홍현방(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Alfonso,V.C., Allison,D.B., Rader,D.E. & Gorman,B.S.(1996). The Extende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 275-301.
- Bordo,S.(1999). *Feminism,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the body*. In J. Price & M.Shildrick(Eds.). *Feminist theory and the body : A reader*(246-257). N.Y. : Routledge.
- Chambers,Pat(2000). *Widowhood in later life*. In Women aging, Eds. by Bernard, Philips, Machin & Davies, London and N.Y. : Routledge.
- Chappell,N.L., & Badger,M.(1989). Social isolation and well-being. *J. of Gerontology*, 14, 169-176.
- Chatfield,W.F.(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 of Gerontology*, 44, 169-171.
- Clark,C.(2002). Beauty in later life : Older women's percep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Canadian J. of on Aging*. 21(3), 429-442.
- Cumming,E. & Henry,W.E.(1961). *Growing Old;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Y. ; Basic Books.
- Davis,MA.Neuhaus,J.M.,Moritz,D.J., & Segal,M.R.(1992) Living arrangement and survival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NHANES I epidemiologic follow-up

- study. *American J. of Public Health*, 82(3), 401-406.
- Holmes, T.J. & Rahe, R.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Keith, P.M. (1986). Isolation of the unmarried in later life. *Family Relations*, 35(3), 389-395.
- Mannell, R.C.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E. Birren (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2). N.Y.: Academic Press. 59-64.
- Peters, G.R. (1971). Self-conceptions of the aged, age identification and aging. *The Gerontologist*, 11, 58-69.
- Sontag, S. (1972). The double standard of aging. *Saturday Review of the Society*, 1(1), 29-38.
- Stroebe, M., Stroebe, W., & Hansson, R.O. (1993). *Handbook of bereavement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Y. : Cambridge Univ. Press.
- Tompson, L.W, et al. (1984). Effects of bereavement on self preceptions of physical health in elderly widows and widows. *J. of Gerontology*, 39(3), 309-314.

접수일 : 2009년 07월 08일

심사일 : 2009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0월 06일